구역예배 말씀

제4권 (4단원 :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)

(제21과) 위로자 바나바

- **본문** : 사도행전 4:36-37, 11:19-26
- **요절** : "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" (행 11:24)
- **찬송** : 355장(새찬송가 323장), 410장(새찬송가 310장)

사람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외에도 한두 가지의 별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본 이름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반영한다면, 별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친 그의 사람 됨됨이나 특징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개성이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,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영예로운 별명을 얻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. 그의 본명은 요셉으로서 구브로 태생의 레위 족속이었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'권위자'(勸慰子) 곧 '위로의 아들'이라는 뜻인 '바나바'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. 그의 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성도들의 진심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?

1. 바나바는 정성껏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.

바나바는 교회를 섬기는 데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. 그는 무엇보다 교회의 일을 소중하게 여겼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. 이것은 바나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"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(번역하면 권위자)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"라고 한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는 사도들을 돕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앞장섰으며, 과부나 고아와 같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선뜻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. 이 같은 바나바의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.

오늘날도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를 이루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. 그러므로 대접받기보다는 묵묵히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 약동하게 됩니다. 만약에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봉사를 등한히 여기거나 혹은 마지못해 봉사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으며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?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할 때, 교회는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,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.

2. 바나바는 형제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.

우리는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도 그에게 우정어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지 못합니다. 사도 바울은 본디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서

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였으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를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사귀려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변호해 주어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하였습니다. 그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맡아 목회할 때, 교회가 크게 부흥되자 바나바는 다소로 찾아가 은둔해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. 이로 인해 바울은 비로소 복음를 전파하는 일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.

이 일 외에도, 바나바는 신앙이 연약하여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던 조카 마가를 끝까지 붙들어 줌으로써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복음 사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. 성경에 "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"(행 11:24)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, 그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위로와 격려를 베풀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.

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도 있고,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심령들이 적지 않습니다. 먼저 믿은 신자들이 사랑으로 이들을 이끌어 준다면 그들도 열심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. 그런즉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시험에 든 신자들을 위로해주고,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며, 연약한 신자를 열심 있는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

3. 바나바는 복음 전파에 온몸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.

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. 한번은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명하시기를 "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"(행 13:2)고 하셨습니다. 이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이방 지역에 파송하였습니다. 두 사람은 배 타고 구브로를 거쳐 소아시아로 건너가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.

그 후 바나바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는 문제로 바울과 의견이 달라서 피차 갈라섰으나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(행 15:39). 그로부터 약 5~7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"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"(고전 9:6)라고 한 것을 보면, 바나바가 그때까지도 열심히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로 보건대, 성경에 바나바의 행적에 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음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. 그는 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"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"(막 16:15)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입니다.

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. "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"(딤후 4:2上) 하신 대로, 전도는 성도들이 항상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입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나바의 전도의 열정을 배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.

바나바는 사도들에게서 "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"(행 15:26)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. 우리도 교회를 위한 희생적인 헌신과 형제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가집시다. 그리하여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기억되는 성도들이 됩시다.